

山形大学歴史・地理・人類学論集

第20号 別刷

발표 요지 지역에서 본 임진전쟁 壬辰戰爭
—요네자와 米沢 우에스기 上杉 신사에 남아있는 명나라 관복을 실마리로—

新 宮 学

山形大学歴史・地理・人類学研究会

2019年 3月

발표 요지 지역에서 본 임진전쟁 壬辰戰爭

—요네자와 米沢 우에스기 上杉 신사에 남아있는 명나라 관복을 실마리로—

Abstract of Lecture: A Regional View of the Imjin War
—Analyzing the remaining Costumes of Ming Dynasty
at UESIGE Shrine in Yonezawa City as a clue

아라 미야 마나부(新宮 学)

ARAMIYA, Manabu

キーワード : 壬辰戰爭 地域 明朝冠服 上杉景勝

Key words : the Imjin War, region, the costumes of Ming Dynasty, UESUGI Kagekatsu

1.

16세기말인 1592~98년에 한반도 韓半島를 무대로 싸웠던 동아시아 삼국의 전쟁을 일본은 분로쿠·게이초의 역文祿・慶長の役, 한국은 임진왜란·정유재란, 중국은 만력 조선의 역曆朝鮮の役 등으로 달리 부른다. 이러한 명칭의 차이는 그 전쟁이 지금까지 각각의 국가와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른 '이야기 narrative'로 말해져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냉전구조'가 해체된 1990년대 이후 이 지역세계는 더욱 긴밀해졌고, 다양한 곤란을 안고 있음에도 지역 전체의 번영과 평화 실현을 위해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회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과거의 전쟁을 새롭게 '임진전쟁 The Imjin War' 이라고 칭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 의의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한국 역사학계로부터 시작되었다(鄭杜熙·李璟珣 편 『壬辰戰爭』 明石書店, 2008).

2.

역사교육 면에서도 한국은 발 빠르게 2007년에 고등학교에 새로이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편성하였다. 그 설치 목적에 대해 2011년 사회과중등교육과정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의 활동과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개설한 과목이다' 라고 서술하였다(三橋広夫·尚子 訳 『東アジアの歴史』 明石書店, 2015).

한편 일본에서는 지리·역사地歴분야는 일본사, 세계사, 지리로 구분하여, 세계사적 시야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일국사적 이해로부터 충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국사와 외국사의 틀을 따르고 있다.

국가 간의 전쟁을 국가 역사 속에 가두어둔 채 역사연구를 아무리 축척해 간다하더라도 자국의 정당성을 서로 주장하는 데만 그칠 수 있다. 지역 안에서 보다 친밀한 문제로서 다시 파악하고, 무익한 전쟁을 억지抑止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인식 획득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3.

이 발표에서는 임진전쟁을 지역에서부터 파악하는 하나의 시도로, 요네자와시 우에스기신사에 남아있는 명나라 관복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관복은 1596년(慶長 원년·万曆 24)에 명나라로부터 히데요시를 통해 우에스기 가게카쓰(上杉景勝)에게 사여된 것이다. 이는 명나라 관료가 착용한 관복 세트로, ①상복(盤領緋袍) 한 벌, ②번복(便服) 한 벌, ③오사모(烏紗帽) 하나, ④코뿔소(犀角) 허리띠 하나, ⑤신발(우세키(烏鷄)) 한 켤레, ⑥도독동지(都督同知)의 관직 등급 수여를 통지한 병부차(兵部劄) 하나로 되어 있다. 보존 상태는 매우 좋으며, 1961년에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임진전쟁을 둘러싼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서 시도된 화평교섭 과정에서 명나라 황제는 히데요시를 일본국왕으로 봉하면서, 히데요시의 부하들에게도 관위와 관복을 하사했다. 그 다음날 히데요시를 필두로 하사된 관복을 입고 연회가 개최되었지만 그 직후 화평교섭은 파탄이 났다. 당시 히데요시의 수하가 된 각지의 다이묘(大名) 도쿠가와 이에야스,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등에게 50세트의 관복이 하사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것 중 교토시 묘호인(妙法院) 소장으로 히데요시에게 사여된 관복 일부를 제외하면, 관복 일체가 남아 있는 것은 우에스기 가게카쓰의 한 세트뿐이다. 이는 매우 귀중한 것이다.

4.

가게카쓰 자신도 실은 히데요시의 명을 받아 바다를 건너 임진전쟁에 참여했다. 1593년 6월부터 9월까지 시나노(信濃)현(현재 나가노현)과 에치고(越後)(현재 니가타현) 지방으로부터 병사 6천 명을 거느리고 웅천(熊川)왜성 토목공사를 담당할 경력이 있다. 가게카쓰는 그 후 에치고로부터 아이즈 와카마쓰(会津若松)로 옮겼고,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 이후에는 이에야스의 명령으로 요네자와로 전봉(転封)되었다.

우에스기 요네자와번(上杉米沢藩)은 어찌서 이 관복과 병부차를 소중히 후세에 전했을까? 요네자와번은 검소와 검약으로 명성을 떨친 하루노리(治憲)(鷹山公)는 물론, 최후의 모치노리(茂憲)에 이르기까지 번주(藩主) 스스로 서적과 무기(武器)가 좀먹지 않도록 말리는 일에 입회하는 등의 가풍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하사받은 관복과 병부차는 명나라와의 책봉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게다가 병부차에는 명나라의 관위를 제수받아 신하가 된 이상, 국왕(히데요시)을 잘 보좌해서 재차 조선을 침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전쟁에 참가한 무장에게는 굴욕적인 글귀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의 병부차와 관복을 소중히 취급한 요네자와번 초대 가게카쓰는 이들 물품을 후세에 남기려는 주체적 의도는 없었던 것일까?

5.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평교섭을 둘러싸고 추진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저지과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의 날카로운 대립이 존재했다. 고니시는 사카이(堺) 출신으로 생가는 약재도매상(薬種問屋)을 경영하였고, 크리스천이기도 했다. 또한 딸을 쓰시마의 소 요시토시(宗義)에게 시집보내는 등 조선과의 교역으로 성장해 온 대마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가게카쓰가 토목공사를 한 웅천왜성에 고니시가 들어와 현지 사령부로 사용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그는 화평 추진파인 고니시와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당시 동아시아 세계 질서를 이해하였기에 이 관복과 병부차를 화평교섭의 증거로 삼아 후세에 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오산승(五山僧)과 교

류가 있었던 가로^{家老} 나오에 가네쓰구^{直江兼統}의 존재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역에 널리 알려진 우에스기 가게카쓰에게 사여된 관복을 실마리로 생각해봄으로써 임진전쟁은 우리들에게도 밀접하게 연관된 전쟁이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

지역이란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태어나 살고 있는 향토로부터 보다 넓은 동북지방, ‘일의대수^{一衣帶水}’라고 말해지는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해역 세계,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 세계까지 좁고 넓은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 발명의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인식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없는 것은 그 차이를 소중히 헤가는 것밖에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解題】

本稿は、韓国の釜山広域市の機張郡機張邑にある機張文化院で2016年9月20日に行われたセミナー「山形と機張の地域活動について」での報告「地域からみた壬辰戦争一米沢市の上杉神社に残る明朝冠服を中心に」の韓国語要旨である。米沢に残る上杉景勝に賜与された明朝冠服を手がかりに、壬辰戦争期における和平交渉に関する歴史事実を東アジア地域で共有のものとし、その伝世された貴重な文化財の価値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意図したものであった。韓国語訳と当日の報告の通訳は、山形大学地域教育文化学部の高吉嬉教授の手を煩わした。このセミナーは、山形県アジア・アフリカ・ラテンアメリカ連帯委員会が主催した「韓国釜山・機張への地域文化交流の旅」2日目のプログラムとして行われたもので、同学部高研究室の企画協力により実現したものである。用意周到なプログラムを準備していただいた高教授にあらためて謝意を表したい。

報告は400年前とはいえ朝鮮半島に甚大な被害をもたらした豊臣秀吉の朝鮮出兵に関する内容で、しかも当地でも激しい戦闘が繰り

広げられたとされるだけに、地域の文化交流を促すものとなるのか些か懸念を懐いたままであった。高教授が事前に韓国語訳を作成して準備してくれていたお陰で、報告の意図をよく理解していただいた様子であった。韓国側の受け入れに当たられた機張文化院郷土文化研究所の黄亀（ファンギ）所長より韓国内で初めて報告された貴重な内容というコメントを頂戴できたのは幸いであった。しかし帰国後は、諸般多忙に紛れて原稿は篋底に秘したままとなっていた。

今年3月、その時取り上げた上杉景勝に与えられた明朝の兵部箭と冠服が、文化審議会の答申により国の重要文化財として改めて分割指定されることが報道された（『山形新聞』2018年3月18日付）。また前年秋に日本学術振興会に申請していた「壬辰戦争期、明朝から日本に贈られた箭付・冠服類の総合的研究」が、科研費の基盤研究（C）に採択されて研究を継続する機会を与えられた（課題番号18K00986）。韓国の機張文化院での報告は、15年以上も前にまとめた拙論「十六世紀の日本と中国・朝鮮との講和交渉一米沢上杉神社

所蔵の明朝冠服を手がかりに一」(『西村山地域史の研究』18号、2000年)をベースにしたものであった。この機会を得て新たに研究に取りかかったところである。東アジアの人々の歴史認識の共有化に資するという報告の初意に照らせば、韓国語での報告要旨を活字に残すこともながしかの意味があるであろうと考え、遅ればせながら公表することにした次第である。なお、本誌への掲載に際しては、韓国の明清史学会会長の重責を担う徐仁範東国大学校教授にお願いして韓国語要旨に目を通して頂いた。

2016年の韓国釜山訪問の目的の一つに、倭城を訪れることがあった。倭城とは、豊臣秀吉が朝鮮半島に侵攻した壬辰戦争に際して、秀吉軍の防衛のために半島南岸に築いた城跡である。現在、韓国の慶尚南道と全羅南道に約30ヶ所の倭城が残されている。倭城については、黒田慶一氏ら日韓研究者による合同の測量調査や国際シンポジウムがすでに実現しており、東アジア地域共有の文化遺産と位置づける試みが始まっている(倭城・大坂城国際シンポ実行委員会編『倭城と大坂城』2006年、太田秀春『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研究』清文堂出版、2006年)。



図版1 西生浦倭城の登り石垣

今回の訪問では、釜山広域市とその周辺に残る3つの代表的な倭城遺跡を実際に訪れることができた。それらの倭城とは、黄所長の案内で交流団の方々と一緒に訪れた西生浦倭城(蔚山広域市蔚州郡西生浦面 図版1)、仁済大学日本語学科の学生、金君と林君に通訳を依頼して訪れることができた熊川倭城(慶昌南道昌原市鎮海区南門洞 図版2)、それに



図版2 熊川倭城の本丸石垣

現在、朝鮮通信使博物館が建設されている釜山浦倭城子城台(釜山市東区凡一洞 図版3)である。西生浦倭城は加藤清正が、熊川倭城は小早川隆景・上杉景勝・小西行長が、釜山浦倭城は毛利輝元・泰元がそれぞれ指揮して文禄二年(1593)前後に築いたとされている(織豊期城郭研究会編『倭城を歩く』サンライズ出版、2014年)。



図版3 釜山の朝鮮通信使歴史館

今回訪れることができた西生浦倭城はとくに保存状態がよく公園として利用されており、現在は歴史的遺跡として整備工事が継続していた。また熊川倭城は、キリシタン大名の小西行長の求めに応じて、イエズス会の司祭グレゴリオ・デ・セスペデス（Gregorio de Céspedes）が諸将に宣教を行ったことから、朝鮮半島における最初のカトリック伝教の地とされている。「鎮海新港開発計画」により海岸線の埋め立てと山麓の開発が進行し、海拔184mの南山山頂に築かれた本丸跡からの景

観が大きく変貌しつつあった。釜山浦倭城子城台は秀吉軍撤退後は、釜山鎮僉使営として使用されたこともあったが、現在は子城台公園として整備され、2011年には壬辰戦争後の朝鮮王朝と日本の江戸幕府との交流の歴史を示す朝鮮通信使歴史館が開館した。

このように倭城を東アジア地域で共有すべき歴史遺産として保存整備している韓国の試みは、近世東アジア史を専門とする私にとって学ぶところが大きく、とても有意義な訪問であった。